

# 친환경 에너지 자립도시 실현 박차

### 에너지전환·자립 정책·탄소중립 등 위한 민간분야 거점공간 '전주시 에너지센터' 개관

전주지역 에너지전환·자립 정책과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을 위한 민간분야 거점 역할을 할 전주시 에너지센터가 문을 열었다.

전주시는 21일 전주시 에너지센터에서 김승수 전주시장과 김일수 한국에너지공단 전북지역본부장, 일반시민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센터 개관행사를 했다.

연면적 1545㎡에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의 에너지센터는 에너지생산을 체험하고 에너지 전환을 테마로 전시하거나 의견을 공유할 수 있는 문화·교육공간으로 조성됐다.

지하 1층에는 건물의 탄소배출량을 줄이는 제로에너지건축 전시공간이 마련됐고, 1층에는 에너지 생산 체험, 에너지채널 등 문화 및 소통 공간으로 꾸며졌다. 2층에서 4층까지는 △예술인 창작공간 △교육장 및 공유공간 △전주시에너지센터 사무실 등이 들어섰다.



전주시는 21일 전주시 에너지센터에서 김승수 전주시장과 김일수 한국에너지공단 전북지역본부장, 일반시민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센터 개관행사를 했다.

이와 함께 개관을 기념해 오는 7월 31일까지 교육·회의공간을 무료로 제공한다. 지하 전시장과 1층 에너지 책방 등 소통공간은 시민 누구나 연중(주말, 공휴일 제외) 이용할 수 있다.

이에 앞서 전주시 에너지센터는 그동안 전주시로부터 업무를 수탁받아

△에너지전환을 위한 시민협력사업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지원 △에너지 교육·홍보 지원 △협력체계 및 네트워크 구축 △에너지 관련 통계 작성 및 관리 등의 사업을 전개해왔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갈수록 심각해지는 기후변화와 에너지 위기로부터

자유로운 '친환경 에너지 자립도시'를 향한 꿈이 전주시에너지센터에서 실현될 것"이라며 "공공부문은 물론 민간에서도 전주시에너지센터를 거점공간 삼아 기후·에너지 위기에 대응할 방안과 정책방향을 적극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윤상 기자



우범기 전주시장 당선인과 정운천 국민의힘 전북도당위원장이 전주시의 발전을 위해 진영과 이념을 뛰어넘는 협력을 하자며 의기투합했다.

## '전주 발전' 진영 넘은 의기투합

### 우범기 전주시장 당선인·정운천 국민의힘 전북도당위원장

우범기 전주시장 당선인과 정운천 국민의힘 전북도당위원장이 전주시의 발전을 위해 진영과 이념을 뛰어넘는 협력을 하자며 의기투합했다.

우범기 당선인은 21일 국민의힘 전북도당을 방문해 정운천 위원장과 격의 없는 대화를 나누며 전주시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며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우범기 당선인은 전주시의 현안에 대한 정책 방향을 전하며 협력을 요청했고, 정운천 위원장은 이에 대한 의견과 아이디어를 전하며 협력 의지를 다졌다.

우 당선인은 "지역발전을 신념으로 삼고 전주시 발전을 사명으로 여기며 과감하고 신속하게 일하겠다"며 "전주의 발전을 위해 정운천 위원장님을 비롯한 국민의힘도 적극적으로 힘을 실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정 위원장은 "협치와 쌍발로 발전전략의 진수를 통해 전주의 완전히 새로운 역사를 써갈 기회를 맞이했다"며 "정치를 넘어 전주의 발전을 위한 한뜻으로 헌신해 전주시민에게 보답하자"고 화답했다. /김윤상 기자

## 전주객사길·만성지구 주차난 해소 나선다

### 시, 공영주차장 조성·오거리 공영주차장 시설개선 공사 등 추진

전주시가 전주객사길과 만성지구 주차불편 해소를 위한 주차공간을 마련한다.

전주시는 갈수록 심각해지는 주차난을 해소하고 인근 주민들에게 쾌적한 주차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객리단길(전주객사길)과 만성지구를 대상으로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먼저 시는 인근 대형민간주차장(옥토주차장, 420면 정도) 운영 종료로 인해 최근 시민들의 주차 불편이 가중된 객리단길에는 다양한 보조사업을 토대로 주차난 해소에 대응기로 했다. 해당 지역은 역사도심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총 5곳(220면 정도)의 주차장부지가 있으며, 시는 현재 2곳에서

공영주차장 조성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시는 현재 나머지 3곳의 주차장부지에 대한 부지매입도 추진할 계획이며, 이 중 옛 옥토주차장으로부터 반경 200m 거리의 주차장부지에 대해 내년까지 공영주차장 조성공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시는 인근 오거리 공영주차장(3층 4단, 183면)에 대해서는 약 6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노후된 바닥판을 교체·보수하는 시설개선 공사를 추진해 주차장 이용객 편의와 안전을 제공할 계획이다.

객리단길 주변의 경우 옛 옥토주차장 인근 노상주차장(44면)이 인근 주민들과 상가 이용객들에게 유료로 제공되고 있으며, 주차장 지원사업을 통

해 인근 전주서문교회 주차장 64면은 무료로 개방되고 있다.

시는 전주초등학교와 주변 5개 교회 등과 협의해 약 300면 규모의 부설주차장을 개방주차장을 확충해나간다는 방침이다.

만성지구의 경우 시는 최근 입주가 시작된 지식산업센터 주변 주차불편 해소를 위해 전방개발공사와 협의해 지식산업센터 맞은편 부지(만성동 1346-1번지) 매입계약을 완료했다. 만성지구는 10개의 주차장 부지 중 8개 주차장(346면)이 사용되고 있으며, 나머지 2개 부지도 120면 규모로 조성 예정이다.

이와 관련 시는 시민들의 주차불편 해소를 위해 공영주차장 조성외에도 △내집 주차장 갖기 사업(그린파크) △공한지주차장 조성사업 △부설주차

장 무료개방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은 기존에 주차장이 없는 단독주택에 대해 담장 또는 대문을 철거해 주차장을 마련할 시 약 150~20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공한지주차장 조성사업은 도심 및 주택가 300m 이상의 공한지를 구청과 협약해 주차장 조성 시 토주에게 재산세를 감면해주는 사업이다. 부설주차장 무료개방 지원사업은 부설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할 시 개방 면수에 따라 시설개선비를 1000~2000만 원가량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시는 매년 3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보조금 지원하고 있다.

이강준 전주시 시민교통본부장은 "차량의 증가로 주차난이 점차 심각해지고 있는 가운데 불법 주정차로 인한 통행 불편과 보행자 안전사고 위험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시민 편의를 위해 도심 내 주차장을 단계적으로 확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 전주지역 학대피해 아동 보호 '맞손'

### 전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전주시아동보호전문기관, 업무협약

전주시보건소 전주정신건강복지센터(센터장 김보영)는 21일 전라북도전주시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학대피해아동 및 가족의 정신건강과 복지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아동의 자살 연령이 낮아지고 있어 아동기부터 정신건강문제에 대한 조기 개입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심리적 손상으로 인한 정신건강문제에 노출될 확률이 높은 학대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추진됐다.

실제로 대한신경정신의학회가 0~18세 아동 61명을 대상으로 '아동학대피해 아동의 정신질환 유병률'을 조사한 결과, 약 50%가 한 가지 이상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가 23%로 가장 많았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21.3%, 우울장애 16.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 학대당한 아이들 중 한 명은 이후에도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어, 사후 정신건강 관리를 위한 지원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학대피해아동 및 가족 구성원의 △심리치료를 위한 연계활성화 △상담 및 사례관리 △프로그램 지원 △교육 및 자문 △아동학대 및 자살 예방을 위한 홍보 △기타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상호협력체계 구축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김보영 전주정신건강복지센터장은 "학대피해아동은 다른 아이들보다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라며 "다양한 심리·정서적 지원을 통하여 아이들이 정신적 고통을 회복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신선 전주시보건소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관내 사각지대에 놓인 아동·청소년들을 조기 발견·의뢰함으로써 잠재적 위험도를 감소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역 내 아동·청소년에게 건강한 성장을 지원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정신건강지원체계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2022년 상반기 퇴직통장 공로패 수여식. 전주시 기획조정국 관계자는 "통장 재직기간 동안 행정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까지 지역 곳곳을 누비며 성실히 봉사해 주신 통장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면서 "특히 코로나19 확산 속에서 각종 방역지원 활동과 착한 일대인 운동, 전주형 재난기본소득, 전주맛배달 서포터즈 등 위기극복을 위한 활동에 적극적으로 맡은 바 임무를 수행해 주신 통장님들의 열정과 헌신을 잊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 전주시, 서일초 일대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 표준모델' 사업 시행

전주시 서일동 서일초등학교 주변 지역이 대한민국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의 표준모델이 된다.

전주시는 행정안전부의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 표준모델' 사업에 선정돼 올 연말까지 국비 5억5000만원 등 총 11억 원을 투입해 서일초 어린이 보호구역을 통학로 안전 확보와 어린이 교통사고 사전예방을 위한 안전한 통학로로 만드는 정비 사업을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현재 5차로인 서일로를 4차로로 줄이는 대신 인도도를 확장하고 주변 도로를 재포장키

로 했다.

어린이보호구역표지판과 옐로카펫, 바다보행신호등 등 어린이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교통안전시설물도 정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서일초 일대를 주변 공원과 어우러지는 그늘정원과 어린이 체험공간이 포함된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정비키로 했다.

서일초 인근 서일공원과 연계해 2개의 식수대에 400여 그루의 나무를 심고, 수목 및 다양한 종류의 꽃 6000그루로 그늘정원을 추가 조성한다. 또 아이들이 체험하고 배울

수 있는 어린이 체험공간도 함께 만들기로 했다.

시는 올 연말까지 모든 공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공사기간 주변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할 수 있도록 홍보 및 현장관리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이에 앞서 시는 2차레의 행정안전부 현장방문 컨설팅과 관계기관 협의, 서일초 관계자 및 주변 아파트 주민 등의 의견을 반영해 그늘정원과 체험공간이 포함된 어린이보호구역 조성 계획안을 마련했다. /김윤상 기자

## 전주시의회 초선 당선인 역량 강화 교육

전주시의회(의장 김남규)가 21일 제12대 시의회를 구성할 초선 당선인들의 의원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의정활동 아카데미를 열었다.

의정활동 아카데미는 앞으로 구성될 12대 의회 초선 의원들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위해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교육하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아카데미는 전일부터 1박2일간의 일정으로 완주 상관리조트에서 열렸다. 첫날에는 유재균 한국산업기술원의 회운영연구소장이 나서 "당선자의 의정활동 순차방법"이란 주제로 예산결

산과 행정감사 방법, 조례안 입안과 실무 기초 등에 대한 강연을 했다.

둘째 날에는 김초희 K이노스피치 대표의 '언론 대응요령 및 스피치 기법' 강연에 이어 선배 의원과의 대화 및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김남규 전주시의회 의장은 "지방자치2.0 시대가 열리며 새 시대 시의회를 향한 시민의 기대가 크다"며 "이번 교육을 바탕으로 시민의 뜻을 대변하는 신뢰받는 제12대 전주시의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전주시의회가 21일 제12대 시의회를 구성할 초선 당선인들의 의원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의정활동 아카데미를 열었다.

## 전주시, 퇴직 통장 145명에 공로패 수여

전주시는 21일 "2022년 상반기 임기 만료 퇴직통장 공로패 수여식"을 열어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통장 임기가 만료돼 퇴직한 145명(완산구 79명, 덕진구 66명)에게 공로패를 수여했다.

이날 행사는 통장 재직기간 동안 행정조직의 최일선에서 시민들과의 교류함을 충실히 수행하며 시정발전에 기여해 온 통장들의 노고에 감사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공로패를 받은 노운순 씨는 "일반시민의 자리로 돌아가더라도 통장 임무수행을 통해서 쌓은 다양한 경

험과 역량을 전주 발전을 위해 쓰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전주시 기획조정국 관계자는 "통장 재직기간 동안 행정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까지 지역 곳곳을 누비며 성실히 봉사해 주신 통장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면서 "특히 코로나19 확산 속에서 각종 방역지원 활동과 착한 일대인 운동, 전주형 재난기본소득, 전주맛배달 서포터즈 등 위기극복을 위한 활동에 적극적으로 맡은 바 임무를 수행해 주신 통장님들의 열정과 헌신을 잊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